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7월 9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·방송·통신 7월 9일(목) 10:00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과장 문동민(044-203-4210),
김의중 서기관(4225), 이주형 사무관(4212)
무역정책과 과장 조영태(044-203-4020),
김봉석 서기관(4021), 김용운 사무관(4024)

민관이 힘을 모아, 다시 뛰는 「수출강국 코리아」로

- 민관이 116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, 올해 무역 1조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수출경쟁력 높여

- **91조원('15~'16 착수)의 대규모 민간투자로 주력품목 경쟁우위 지속 확보**
- **민관합동 연구개발(R&D) 투자('15~'18, 6.8조원)로 차세대 유망품목 키워**
- **업종별 특성에 맞는 대형화·전문화 등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**
- **화장품·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및 해외생산거점 전략적 구축**
- **무역금융 16.2조원 확대 공급, 대대적 '온라인 특별할인전' 실시**

□ 7. 9.(목) 대통령 주재 「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」에서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**수출경쟁력 강화대책**」을 보고했다.

* (안건1)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(문화부)
(안건 2) 투자활성화 대책 (벤처 창업활성화 /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) (금융위, 중기청, 국토부)
(안건3)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(산업부)

○ 이번 대책은 최근 **수출동향을 점검**하고, 침체된 **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**하는 한편, **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**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
최근 수출동향 및 평가

□ **'15년 상반기** 수출 2,690억 달러(전년동기비 △5.0%), 수입 2,223억 달러(△15.6%)로 월별 수출입이 **6개월 연속 감소.**

* 수출증가율(전년동월비, %) : (1월) △1.0 → (2월) △3.3 → (3월) △4.5 → (4월) △8.0 → (5월) △10.9 → (6월) △1.8

□ 최근 수출부진은 **세계경제 둔화**, **저유가**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와 **엔·유로화 약세**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 **경기적 요인**과 함께,

○ **중국의 성장률 둔화** 및 **무역구조 변화**, **주력산업 경쟁력 약화***, **글로벌 생산 확대** 등 **구조적 요인**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.

* 후발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경쟁우위 품목 시장지배력 약화,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, 경쟁국 대비 기술우위 축소 발생

대책 주요 내용

(1) 중소·중견기업 수출활력 제고

○ 정부는 중소·중견기업의 **무역금융·마케팅 등 수출애로 해소**를 위해 **16.2조 원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**('15.하~'16)하고, **해외전시회 지원 확대**, 대기업 해외유통망 활용 등 **마케팅 지원도 강화**할 것이다.

○ 한편, **전자상거래 등 신(新)무역방식 활성화**를 위해 **대대적 '온라인 특별할인전'**을 실시(8월, 11월)하고, 중국 칭다오 등 **8곳에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(B2C) 공동물류센터 확대**('15.하반기), 티몰(**T-mall**) **내(內) 한국관 확충**(60→100개 사)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

- **해외공공조달, 정부 간 무역**(G2G) **방식 수출활성화**를 위해 **해외조달시장 진출 선도기업 육성**('15.7월, 220개사 선정예정), **정부 간 무역**(G2G)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. (현행 방산물자 중심 → 전자통관시스템 등 행정서비스)

○ **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 활용제고**를 위해, **중국 성·시(省·市)별 시장정보 등을 제공**하고, **통합무역정보서비스(TradeNAVI)를 확대 개편**하는 한편,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웹서비스도 지원(12월)한다.

○ 한·중, 한·유럽연합(EU) 자유무역협정(FTA) 관세효과 활용 등 복귀희망 기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, **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**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다.

(2) 수출품목 · 시장의 전략적 다각화

○ **민간유통사와 공동으로** 글로벌 생활명품(~'17년 100개), 지역특화상품 등 다양한 **유망소비재를 발굴**하고, **품목특성**에 맞게 **맞춤형으로 지원하고**

- 한국산 「**정품인증**」 시범사업 추진('15.하반기), **해외인증획득 비용지원 확대**('16년 2,900개사) 등 **해외인증 관련 지원을 강화**해나갈 계획이다.

○ **중동 · 중앙아 · 러시아 등 지역은** 신흥시장 점유율 선점을 목표로, **무역금융 및 마케팅 지원, 제재완화 대비**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.

○ 해외 생산거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, **베트남 '해외공동물류센터', 맥시코 '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'** 등을 '16년 중 신규개소하고, 아세안 지역 **해외공장 설립시 무역금융도 확대**('14 1.9조 원→'15. 4조 원)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한편, 베트남, 인도 등 기업진출 수요가 큰 **생산거점으로 각종 수출지원기관을 재배치**하는 한편, **우즈벡, 중미 6개국** 등 **역내시장 진출이 용이한 거점국가와 자유무역협정(FTA)를 우선 추진**해 나갈 것이다.

(3)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

① **민간**은 현재 시장지배력이 큰 주력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**91조 원 규모의 선제적 설비투자에** 착수할 예정이며 ('15~'16년, 착수기준)

※ 투자 집계 기준

① **'15~'16년 착수**하는 주요 설비투자 프로젝트 (기업간 협의중 프로젝트 포함)
② **공장 신·증설(Green Field) 투자**만 포함 (단 자동차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포함)
③ 「주요기업 투자간담회('15.2)」 집계 '15년 착수 예정 투자 계획(34.4조원) 포함

-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해 정부는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) 등 **핵심기자재 수입관세 감면 확대**, 주요 투자프로젝트별 **'전담지원관'**을 **지정 · 운영**할 계획이다.

② 2~3년내 시장선도 가능성이 큰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), 모바일 중앙처리장치(CPU) 등 **차세대 유망품목육성***을 위해 **민관합동 6.8조 원 규모** 연구개발(**R&D투자**)('15~'18)를 확대하며,

* 차세대 유망품목 : OLED(유기발광다이오드), 리튬이차전지, 모바일중앙처리장치(AP), 친환경선박, 엘엔지(LNG)화물창, 셰일가스용강관, 고망간강, 항공기체부품, 정보통신(IT) 기반 안전·편의 시스템, 폴리케톤, 사파이어 단결정, 이차전지 양극, 초고순도 탄화규소(SIC), 고기능성 합성수지, 위생용품용흡수제,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, 제조용 생산시스템('18년 474억 달러 수출 전망)

- 연구개발(R&D) **투자 조세특례 지원제도**는 심층평가를 거쳐 **일몰연장 여부 및 대상기술 재조정(조특법)을 적극적으로 검토**하고, 핵심기술·인력유출 방지 위한 **'인력관리 가이드라인'**을 개발·보급해 나갈 것이다.

- 한편, **수요대기업과 소재부품 공급**기업간 '**전후방산업 협력위원회**'를 구축해, **국내기업간 교차구매** 촉진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

*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혁신형 제품 등을 선도적으로 구입. 초기시장 창출지원

- 혁신형 정보기술(IT)융합제품 신속출시를 위해, **'규제 그레이존 해소'** 및 **'기업 실증특례' 제도** 등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. (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)

③ **대형화, 전문화, 신사업 진출** 등 **업종별 자발적 사업재편**과 관련, 하반기 중 업종별 최고경영자(CEO)가 참여하는 '**업종별 민간협의체**' 구성해, 민간 주도로 자발적인 사업재편 추진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.

- 정부는 업종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, **석유공사 부두·저장소 임대**, **에코쉽 프로젝트 펀드** 활용(1조원, 旣조성), **자동차부품전용산단 조성** ('16~'21, 광주) 등을 추진하는 한편

- 연내(年內)에 **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정을 완료하고,**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**과세이연 등 세제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.**

④ **중소기업 생산성 혁신**을 위해, **엔·유로 약세 피해 업종** 중소기업 대상으로 **스마트공장을 우선 보급**하고, (**하반기 900개, 누적 1,200개**)

-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위해, '**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**'를 설치(에너지관리공단내)하고, 하반기 중 '**(가칭)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법' 제정** 및 '**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**'을 **수립**할 예정이다.

[별첨 1] **「수출경쟁력 강화대책」 요약자료**

[별첨 2] **「수출경쟁력 강화대책」 전문**

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

경제혁신 3개년 계획

수출경쟁력 강화대책 [요약]

2015. 7. 9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최근 수출동향 및 평가 ····· 1

1. 최근 수출동향 ····· 1

2. 수출부진 요인 ····· 1

3.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····· 1

Ⅱ.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주요내용 ····· 2

1. 중소·중견기업 수출활력 제고 ····· 2

2. 수출품목·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····· 3

3.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·····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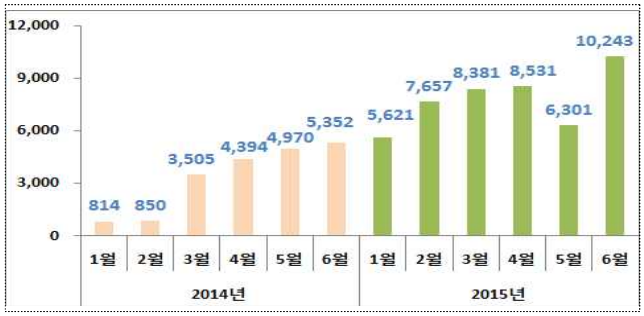
1 최근 수출동향 및 평가

□ **'15.상반기 수출**은 2,690억불(전년동기비 △5.0%), 수입 2,223억불(△15.6%), 무역수지 467억불 흑자 ⇒ **월별 수출입**이 **6개월 연속 감소세** 기록

< **월별 수출입 증가율**(%) >



< **무역수지 흑자규모**(백만불) >



○ 다만, 우리나라는 주요국 수출 감소보다 소폭으로 감소하여, 전세계 수출규모에서는 **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상승**하며 **선전한 측면**

□ 최근 수출부진은 **세계경제 둔화, 저유가**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와 **엔·유로화 약세**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 **경기적 요인**과 함께,

* '1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변동(%) : (IMF)3.8→3.5, (WB)3.4→2.8 (UN)3.1→2.8
* 석유제품수출단가($/B) : ('14.6월)117.5 →('15.6월)74.0(전년대비 △37.0%)

○ **중국의 성장률 둔화** 및 **무역구조 변화, 주력산업 근본적 경쟁력 약화***, **글로벌 생산 확대** 등 **구조적 요인이 작용**

- 특히, 후발경쟁국 대규모 투자로 **경쟁우위 품목 시장지배력** 약화,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**수익성 악화**, 경쟁국 대비 **기술우위 축소 발생**

* (예) 철강업종 세계시장 점유율 (%, '12→'14) : 한국(6.53→6.15), 중국(11.63→12.62)

< **주요 수출 부진요인 및 향후 중점 대응방향** >

	주요 부진요인		중점 대응방향
경기적 요인	▪ 엔·유로화 약세로 가격경쟁력 약화	▶	▪ 엔·유로화 약세 피해기업 지원강화 ▪ 중소중견 수출금융 및 마케팅 지원
구조적 요인	▪ 후발경쟁국의 투자 등 추격심화 ▪ 수출품목 다각화 미흡 ▪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	▶	▪ 선제적 투자 통한 경쟁력 확보 ▪ 주력업종내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 ▪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
	▪ 對中 무역구조변화 ▪ 우리기업의 글로벌 생산확대(GVC)	▶	▪ 소비재 품목 수출 강화 ▪ 해외생산기지 활용한 수출 확대

2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주요내용

목표

- **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반전의 모멘텀 마련**
- **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동력 확보**

3대 추진방향	12대 추진과제
1. 중소·중견기업 수출활력 제고	① 무역금융·마케팅 등 수출애로 해소 ②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 활성화 ③ FTA 활용제고를 위한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④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⑤ 수출형 유턴기업 육성 및 지원
2. 수출품목·시장의 전략적 다각화	① 화장품·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②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시장 개척노력 강화 ③ 해외 생산거점 전략적 구축 및 활용
3.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	①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주력품목 우위 강화 ②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통한 수출동력 확충 ③ 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 ④ 생산성 혁신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

(1) 중소·중견기업 수출활력 제고

□ 무역금융·마케팅 등 수출애로 해소

○ 수출기업 유동성 애로해소를 위해 **16.2조원 무역금융 공급**('15.下~'16)

* **환율 피해기업 금융지원(0.7조)** : 지원규모·대상확대(무보, 1,500억원 신규배정, 유로 피해기업 포함), 자동차·철강 등 수출부진품목 대상 자금지원 확대(수은, 5,000억원

*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금융지원 (8.9조원)** : 수출급성장 및 초보기업 약 2,000개 대상 9천억원 규모 무역보험 지원, 수출팩토링(수은, 5,000억원), 해외건설 플랜트 수출금융 증액(2.5조원), 서비스 수출금융 5조원 증액(~'16)

* **전대금융** 등 해외금융기관 연계지원 (60억불 ≒ 6.6조원)

□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 활성화

○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대규모로 참여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**온라인 특별할인전 개최** (8월, 11월 2차례),

* 오픈마켓(11번가, Kmall24 등), 백화점·면세점 온라인 몰(롯데인터넷면세점 등), 해외 쇼핑몰 한국관(Tmall 등) 등 /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추진

○ 중국 칭다오 등 **8곳에 B2C 공동물류센터 신규운영**('15.下)하고, **T-mall 內 한국관 확충**(60→100개社)

○ **해외공공조달, G2G 방식 수출활성화**를 위해 **해외조달시장 진출 선도기업 육성**('15.7월, 220개사 선정예정), **정부간 무역**(G2G) 대상확대

* (예) 현행 방산물자 중심 → 전자통관시스템, 기상예보시스템 등 행정서비스 확대

□ **FTA 활용제고를 위한 기업맞춤형 정보제공**(FTA활용률 '14. 59% → '18. 72%)

○ FTA 未활용 중소기업 대상 **통관·원산지** 등 **정보·컨설팅 제공**

* 산업부(FTA종합지원센터, 지역 FTA센터 17개), 관세청(전국 30대 세관), 중기청(중진공) 활용

○ 비관세장벽 정보제공 강화* 및 **기술장벽 애로해소 지원센터**(TBT 지원센터) 설치 ('16, 국표원)

* 현지 설명회/간담회 개최와 국내 FTA포털·비관세장벽 포털 정보제공 연계('15.下), 미국, EU, 중국, 베트남 등 주요국의 수출·투자 규제정보 발간('15.12월)

○ **통합무역정보서비스**(TradeNAVI) 대상국가 등 확대, **모바일 웹** 제공(12월)

* 대상국가 : ('15년) 49개국 → ('16년) 63개국(페루, 남아공 등 14개국 추가)
* 연계기관 : ('15년) 34개 → ('16년) 44개(증권사, 연구소 등 10개기관 추가)

□ **수출형 유턴기업 육성 및 지원**

○ 한·중, 한·EU FTA 관세효과 활용 등 복귀희망 기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, **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**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

* 해외에서 수출실적(매출액의 50% 이상)을 인정하여 입주자격 부여

(2) 수출품목·시장의 전략적 다각화

□ **화장품·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**

○ **민간유통사**(롯데, 현대, CJ)**와** 공동으로 글로벌 생활명품(~'17년 100개), 지역 특화상품 등 다양한 **유망소비재를 발굴**하고, **맞춤형으로 지원**

- 특히, 한국산 **「정품인증」** 시범사업 추진('15.下), **해외인증획득 비용지원 확대**('16년 2,900개社) 등 **해외인증 관련 지원 강화**

<유망 소비재 품목별 맞춤형 지원방안>

패션·뷰티	글로벌 유통망 진출지원 확대, 알리바바 B2B 쇼핑몰 한국패션관 신설
농수산식품	중국內 콜드체인 및 현지 판매망 구축, 할랄식품 시장 공략 강화
문화콘텐츠	한중 문화산업발전펀드 본격 투자, 한류스타 마케팅 추진

□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시장 개척노력 강화

○ **(중동·중남미·중앙아)** 기존 건설·플랜트 외, 에너지신산업, 전자무역, 교통관리시스템, 사이버보안, 보건의료 등 고부가가치분야 진출 확대

* '15.4월 중남미 순방시 콜롬비아·브라질과 전자무역 협력 MOU 체결

- 중동 투자와 연계한 '제3국 공동진출' 방식 프로젝트 추진 확대

* 한-사우디간, 한-카타르간 제3국 공동진출 가능 프로젝트 리스트 상호교환

○ **(이란·쿠바)** 제제해제 단계별 수출 가이드라인 개정, 유망품목 무역금융 지원 강화* 등 지원체계를 사전구축하고 교류·협력 강화

*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(무협), 쿠바 시장진출 전략 마련(KOTRA)
** 무역보험 지원 : (이란) 중소기업 부보율 확대(80→90%), 대기업 인수재개
(쿠바) 지원한도 증액(€25백만→€60백만)

○ **(러시아·아프리카)** 수요 확대에 대비, 마케팅 및 시장정보 지원

* 러시아 : 유휴 산업설비 수출상담회('15.11), 한국산 식자재 수출상담회('15.3분기) 등
* 아프리카 : 남아공 대형 유통사 초청 상담회('15.10월), 아프리카 기계 수출상담회('15.10·11월)

□ 해외 생산거점 전략적 구축 및 활용

○ 해외 생산거점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, **베트남 '해외공동물류센터'*, 맥시코 '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'** 등 16년 중 신규 개소

* '15년 현재 해외공동물류센터 22개국, 43개소 구축(A/S기능은 9개센터)

○ **아세안 지역內 해외공장 설립시 무역금융 확대**('14년 1.9조→ **'15년 4조**) 및 **지원조건 개선** ('15.下, 플랜트 기자재 수출 계약 전 先금융제공)

○ 베트남, 인도 등 주요 **생산거점으로 수출지원기관을 재배치***하고 **우즈벡*, 中美 6개국** 등 **역내시장 진출거점 국가와 FTA 우선 추진**

* 지역별 기업지원 수요 등을 토대로, 수출지원기관 재배치 계획 확정('15. 下)
* 한-우즈베키스탄 CEPA 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연구 추진 MOU 체결('15.6월)

○ **글로벌 파트너링(GP)** 사업*을 **중국 등 거대 소비시장 중심으로 확대**

* 국내 유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 수요를 발굴 매칭, R&D 등 지원

구 분	'14년	'17년
유망 중소기업 DB	3,000개사 (자동차, 기계 등)	5,000개사 (항공, 전기차 등)
글로벌 수요기업	155개사	600개사
대상 지역	미, EU, 일 등 선진국	중국, 인도 등 신흥시장

(3)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

□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주력품목 우위 강화

○ **민간**은 주력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**91조원 설비투자** 착수 ('15~'16년)

※ 투자 집계 기준

① **'15~'16년 착수**하는 주요 설비투자 프로젝트 (기업간 협의중 프로젝트 포함)

② **공장 신·증설(Green Field) 투자**만 포함 (단 자동차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포함)

③ 「주요기업 투자간담회('15.2)」 집계 '15년 착수 예정 투자 계획(34.4조원) 포함

- **(디스플레이·반도체) 선제적 투자**로 시장선도적 지위 유지

* 세계 최고기술 수준을 보유한 OLED 품목에서 경쟁국과 기술격차를 유지하고, 메모리반도체 등 품목의 시장지배력도 더욱 확고하게 유지

- **(석화·정유·철강) 대형화** 등을 통한 **고부가화, 가격경쟁력 확보**

* 범용제품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설비투자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, 고부가가치 품목 투자도 확대

- **(자동차·기타 등) 생산성 향상 및 핵심부품** 관련 투자

○ **정부**는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해 프로젝트별 **'전담지원관'**을 **지정·운영**하고, **핵심기자재 수입관세 감면, 자금** 등 지원

□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통한 수출동력 확충

○ OLED, 모바일 CPU 등 2~3년이내 시장선도 가능성이 큰 **유망품목** 육성을 위해 **民官합동 6.8조원 규모 R&D투자**('15~'18)를 확대

* 차세대 유망품목 : OLED, 리튬이차전지, AP, 친환경선박, LNG화물창, 셰일가스용 강관, 고망간강, 항공기체부품, IT 기반 안전·편의 시스템, 폴리케톤, 사파이어 단결정, 이차전지 양극, 초고순도 SIC, 고기능성 합성수지, 위생용품용흡수제, 수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, 제조용 생산시스템 ('18년 474억불 수출 전망)

○ **R&D 투자 조세특례 지원제도**는 심층평가를 거쳐 **일몰연장 여부 및 대상기술 재조정**(조특법)을 **적극 검토**하고,

- 핵심기술·인력유출 방지 위한 **'인력관리 가이드라인'** 개발·보급 (15.下)

○ **수요대기업과 소재부품 공급**기업간 **'전후방산업 협력위원회*'**를 구축하여, **국내기업간 교차구매, 이업종 교류 등**을 유도

* 국내 글로벌 브랜드 전방업체(현대차, 삼성전자 등), 후방 소재·부품업체 등으로 구성

○ 혁신형 IT융합제품 신속출시를 위해, **'규제 그레이존 해소'** 및 **'기업실증특례' 제도** 등 도입 추진 (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)

□ **대형화, 전문화, 신사업 진출** 등 **업종별 자발적 사업재편** 추진

○ 하반기 중 **업종별 CEO 참여**하는 **'업종별 민간협의체'** 구성하여, **민간주도로 자발적인 사업재편 추진방향**을 논의해 나갈 계획

○ 정부는 **업종별 협력을 촉진**하기 위해

- **석유공사 부두·저장소 임대,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** 활용(1조원, 旣조성), **자동차부품전용산단 조성**('16~'21, 광주) 등을 추진하는 한편,

- 年內에 **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정**을 완료하고,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**과세이연 등 세제특례 등 지원 예정**

□ **생산성 혁신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**

○ **스마트공장 보급 확대**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

- **엔·유로 약세 피해업종** 중소기업 대상 우선 보급(하반기 900개 추가)하고, 보급대상에 **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(FEMS)** 등 에너지효율 설비추가

* '15년 하반기 보급 계획(개사) : 개별기업 550, 업종 250, 창조경제혁신센터 100

- 지역투자보조금('15, 100억원)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**'15년 1,500억원***, **'18년까지 총 8,000억원 이상**으로 투자재원 규모 확대

* 정부(400억원), 대기업(100억원), 중소기업(500억원), 산업은행(500억원, 융자)

○ **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**

- **'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'**를 설치 (에너지관리공단내)

- 하반기 중 **'(가칭)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법' 제정** 및 **'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' 수립**

참 고 **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(요약)**

구분	주요 내용
반도체	▪ **시장주도권 유지를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** 추진 → **입지애로 해소** 등을 통해 투자이행 뒷받침 ▪ **모바일 CPU(AP)를 수출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**하고, **우수 설계인력 양성**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성장기반 확충
디스플레이	▪ **8세대급 LCD 설비투자** 확대, **대면적·고해상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** 가속화 등을 통해 LCD 분야 경쟁우위 지속 유지 ▪ **OLED 분야 선제적 투자, OLED 제조설비 할당관세 지원, 차세대 기술 조기 확보** 등을 통해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확대
석유화학	▪ **범용분야 통합·설비확충 등 생산설비 조정**을 통해 전문성·효율성을 제고하고 **나프타 원료 공동구매** 등 원가절감 추진 ▪ **해외기업 합작**, R&D 등을 통해 **수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** 등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진출기반 마련
철강	▪ 셰일가스용 강관, 망가니즈스틸, 타이타늄 등 **고부가가치 수출유망품목 육성**을 위해 R&D 투자 확대 및 사업화기반 구축 ▪ 타국의 **수입규제 징후 조기 포착·대응** 등 수입규제 적극 대응
조선·해양플랜트	▪ **조선소-기자재업체간 협력** 등을 통해 **친환경 선박**, LNG **화물창**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**수출 주력선종**으로 조기 육성 ▪ **에코쉽 프로젝트 펀드**(1조원)을 활용한 **단기 일감부족 애로** 해소
자동차(부품)	▪ **생산성 향상 및 신차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, 유망 신차 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** 등을 통해 완성차 경쟁력 제고 ▪ **중소부품업체와 IT·SW업체간 제휴·합작** 및 해외 부품업체 M&A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부품업체 육성
기계	▪ **스마트공장용 기계·로봇, 첨단소재 가공시스템** 등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고, **국내수요를 활용한 수출 Reference** 구축 ▪ 동남아 등 **해외 생산거점 변화에 대응**하여 대기업 현지투자와 연계한 **기계·장비 동반수출** 유도
전자전기	▪ 대·중소 협업을 통해 **IoT 융합 중소가전 등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을 육성**하고, **해외 홈쇼핑** 등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 ▪ 중대형 이차전지 등에 대한 **원천기술 및 수요연계 공동 R&D**를 추진하고, **한·베 FTA 등을 활용한 현지공장向 부품 수출** 확대
섬유	▪ 공정 스마트화, 물없는 염색기술 개발 등을 통해 **효율화·청정화** ▪ **탄소·아라미드 섬유** 등 유망품목 육성 및 상생협력 R&D 추진 ▪ **K-패션 프로젝트, 알리바바 한국패션관 신설** 등 中 내수시장 진출